



주인장 윤재영씨가 만든 수제 빈티지 스피커가 놓인 구례 카페 '음악이 흐른다'

직접 제작한 '빈티지 스피커'로 즐기는 음악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는 정미조의 '개여울', 클라리넷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바이올린의 구슬픈 선율이 인상적인 비탈리의 '샤르느 G단조', 경쾌한 색소폰 곡 벤 웹스터의 'When I Fall in love'...

가요, 영화음악, 클래식, 재즈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각기 다른 스피커로 들어보는 시간은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오디오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임에 틀림없다.

한여름밤, 오디오로 듣는 음악의 세상에 빠져든 곳은 구례에 자리잡은 카페 '음악이 흐른다' (구례군 간전면 간문대평 1길 1). 지난 5월 윤재영 (45) 조희숙 (40) 부부가 문을 연 이곳은 70년 스피커 역사가 담긴 빈티지 스피커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로 스피커는 윤씨가 수작업으로 재현한 것들이다. 각각의 스피커는 20평 규모의 작은 공간에 맞게 크기를 오리지널의 60~70% 정도로 축소해 제작했다.

카페에는 1950년대 빈티지 스피커부터 현대 스피커까지 시대별 음악과 장르를 살려 들을 수 있는 스피커들이 놓여 있다. 1950~60년대 스피커를 상징하는 웨스턴 7395, JBL 하츠필드, 탄노이 오트그라프를 비롯해 1960~1980년대 극장 스피커로 유명한 알텍 등이다. 또 1980년대 가정마다 한 대쯤 있었던 태광, 인켈, 롯데 전축 등 하이파이 스피커 컨셉을 살린 10.1 채널 스피커들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트럼펫을 전공하고 오디오 매니아였던 장인이 남겨준 빈티지 오디오와 미니어쳐 스피커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윤재영·조희숙 부부

윤재영·조희숙 부부 구례에 카페 '음악이 흐른다' 오픈

'알텍' 등 오리지널 60~70% 크기 수제 스피커 갖추고 다양한 음악감상

매주 일요일 무료 청음회 개최... "시골 아이들 음악교실로 활용하고 싶어"

특히 카페에서는 매주 일요일 다양한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는 청음회(聽音會)를 열고 있다. 윤씨가 직접 선별한 곡들을 1시간 30분 동안 설명과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전화예약을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양평에 살았던 윤 씨 부부는 구례와 연고가 없다. 언제부터가 전원생활을 꿈꿨던 두 사람은 이만을 염두에 두고 광활한 대자연이 펼쳐지는 미국 동부에서 몇 개월 생활하기도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을 접고 '제2의 인생'을 꾸릴 곳으로 구례를 점찍었다.

처음 만나는 이에게도 해피 바이어스를 퍼트리기는 이 부부는 '음악'으로 이어졌다. 남편은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했고, 아내는 보컬로 활동했다. 윤 씨가 빈티지 사운드에 빠져든 건 5년전이다.

"공연을 하던 사람이라 크고 기계적인 사운드를 즐겼었죠. 어느 순간, 자연에 마음이 가고 시골 생활을 꿈꾸면서 소프트한 소리, 자연스러운 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때부터 빈티지 오디오를 찾아다녔고 장인들을 만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피커를 세팅하고 나서는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 실망도 했지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리'에 대한 감정은 주관적이라 제 취향에 맞춰 세팅을 하면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카페를 열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뒷 층은 살림집으로, 1층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공간으로 꾸미자 싶었던 두 사람은 어차피 음악을 듣는 곳인데,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면 어떤 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저희는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음악과 빈티지 오디오를 좋아하는 이들이 꾸린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페를 찾는 분들과

스피커와 음악에 대화를 나누며 많이 배우기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소리를 따스하게 품어주는 것 같아 더 좋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음반을 가지고 오셔서 7시간 씩 음악을 듣고 가시곤 해요. 이 스피커 저 스피커 들어보면서요."

이 곳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재즈 음악을 주로 틀어두지만, 발일하다 들어와 커피를 시키는 동네 어른들이 요청하면 트로트도 들려준다. 두 사람은 또 이 공간이 시골 아이들의 근사한 음악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아버지에게 선물받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던 윤 씨는 그 때의 '첫 경험' 이후 음악이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어릴 적 음악을 접하면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공연도 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하고 싶어요. 또 동료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공연 등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듀엣 '윤조에센스'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은 2019년 늦게 얻은 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준 데 대해 감사하며 함께 곡을 쓰고 연주하고 노래한 '여기 함께 있으니'를 음원으로 발매하기도 했다.

"아빠가 불러주시는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면 지금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려던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 공간입니다. 큰 기대를 갖고 오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웃음). '우리 거실에 놀러오셔서 음악 들으세요'라는 컨셉이니,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 좋겠습니다."

윤 씨가 남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핑퐁 바리스타 역할을 하며 카페를 지키는 아내 조 씨의 말처럼 '음악이 흐른다'는 '멋진 친구집에 초대받아 함께 음악을 나누는 기분'으로 한 톱포 쉬어갈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다. 오픈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일요일에는 청음회만 진행. 예약 0507-1427-557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순천미디어네트워크

지역 공동체 라디오 전국 20곳 선정...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 전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공동체 라디오에 광주·전남지역 두 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주·전남에서 추가된 곳은 (사)고려인마을과 순천시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 두 곳이며, 이외에 전국 18개 사업자

가 뽑혔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10W 미만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에 방송하는 지역 밀착형 FM 라디오 방송이다.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동네 주민이 방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됐으며 현재 서울 관악,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등 7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종전과 평화'

코리아시 두번째 앨범 발매... 김원중·한경숙 등 참여 시·사진 등 담겨... 뮤직비디오 공개, 토크콘서트도

문화와 예술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이사장 이계양·이하 코리아)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7월27일)을 맞아 앨범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코리아시에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단체로 휴전선을 지나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베를린까지 육로로 국경을 넘어보자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종전과 평화'를 주제로 탄생한 이번 앨범 '멈추지 않으리라, 평화의 노래들'은 코리아시 예술가 창작워크숍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예술가 창작워크숍은 가수 김원중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영감을 나누고 창작을 독려하는 모임으로 시,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에 발매한 첫 번째 음반에 이어 이번엔 발매되는 앨범의 메인 이미지는 주홍 작가의 '평화의 길을 내다'라는 작품으로 철조망을 함께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멈추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을 표현했다.

또 앨범에는 9곡의 창작곡과 2편의

시, 1편의 사진 작품이 함께 담겼는데, 장르 간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곡들이 수록된 점이 특징이다.

한경숙 시인의 글에 프롤로그 최성식이 곡을 붙여 만든 '푸르른 날에', 박관서 시인의 글에 가수 박창근이 곡을 쓴 '풍덩이'의 노래(부제:휴전선에서2)', 주영국 시인의 글에 곡을 붙인 우물안개구리 라떼당의 '봄 바람 봄 나무'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김원중의 '허허허', 싱어송라이터 기드온의 '마실' 등도 만날 수 있으며, 박관서 시인의 '휴전선에서'와 주홍 작가의 '물처럼 바람처럼' 두 편의 글 그리고 지난해 코리아시 전국투어 공연 당시 대구의 하늘을 촬영한 리얼친 작가의 작품 'Fantasy2020 II'도 실었다.

뮤직비디오는 오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 매주 화·금·일요일 오후 7시 27분 코리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곡씩 공개된다. 마지막 곡을 선보이는 8월 15일에는 이번 앨범과 영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51-081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8월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포시즌-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시리즈 두번째 무대에 피아니스트 원재연이 오른다.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8월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지난 20일 오픈했으며 이번 독주회 시리즈는 클래식 스타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기가 많아 관람을 원하는 관객은 예매를 서둘러야 한다.

2017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한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원재연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팬데믹 시기,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이날 공연에서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슈만과 브람스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흔히 연주되지 않지만 한편의 문학 작품 같은 슈만 '숲의 정경', 클라라 슈만이 초연한 곡으로 극도의 절제된 낭만주의를 느낄 수 있는 브람스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원재연이 가장 사랑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라 밝힌 슈만의 '환상곡 C장조'가 연주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31일 고양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 열리는 전국 투어 리사이틀이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기능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